

우리 삶속에 내재된 ‘그해 5월’의 기억들

문화향기단과 삶을 힐링하다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법들

1980년 5월 당시 필자는 동구 지원동 지금의 남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당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낮 동안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았지만, 저녁만 되면 온 가족이 집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간간히 들려오는 총소리에 몸을 움츠려야 했다. 다음날이 되면 낮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사이이며, 삶은 계란 등을 지나가던 차에 올려주던 기억 역시 생생하다. 당시 지원동은 화순을 향하는 길목이고, 먼 훗날 5월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아픔의 현장 주남마을이 멀지 않음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후일, 초등학교 5학년에는 지금의 송암공단 인근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유년시절부터 살던 친구들 역시 80년 5월 송암동에서의 총격전과 주민 살상에 관한 작·간접적인 기억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

5월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의 기억이 이러한데, 당시 항쟁에 작·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가족을 잃었던, 항쟁의 현장을 직접 보진 않았어도 떠도는 흉흉한 소문에 몸서리쳤던... 모든 광주시민은 그 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광주 시민이 몸으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5월 광주를 애곡하고 폄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39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더욱더 5월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39년의 역사 속에서 광주의 예술인들은 공연에 솔작품으로 5월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작업을 해왔다.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 ‘언젠가 봄날에’, 극단 토박이의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푸른연극마을의 ‘한 남자’, ‘오월의 석류’, 광주문화재단의 ‘자스민 광주’ 등 다양한 주제와 표현양식으로 광주 5월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문옥, 정용주, 김원중, 박종화는 음



광주문화재단 ‘자스민광주’ 공연 모습. 작은 사진은 극단 토박이 ‘모란꽃’

악을 통해서 그리고 미술, 문학, 영상 등 모든 예술 장르의 예술인들이 마찬가지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15년 발표한 미니앨범 ‘화양연화 pt.2’의 수록곡 ‘마 시티’(Ma city)는 아미(BTS 팬클럽)에겐 고향 찬양곡으로 통하는데, 광주 출신의 제이홉은 자신의 랩 파트에 5월을 언급하며 의미 있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광주시립극단의 ‘달빛결혼식’ 작품처럼 5월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다양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에서도 지난해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을 원곡으로 한 창작관현악곡 창·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9년 광주 5월의 역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만큼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음악이 또 있을까?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역사의 중심에 선, 지금은 권위적인 정부에 탄압받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불리고 있는 명실 공히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이라 하겠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갖는 이러한 역사와 정신을 기반으로 세계인의 감성에 호소하고자 보편적



놀이패 신명 ‘일어서는 사람들’



5월 광주 39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광주 곳곳에서는 5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의 음악인들이 5월 한 달 동안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에서 진행하는 ‘5월 상설음악회’, 신명의 ‘금요 456극장’, 토박이의 ‘5월 상설공연’, 그리고 여러 전시와 공연들, 광주의 모든 공연, 전시, 축제 정보를 종합하는 ‘문화마실 5월호’를 들고 5월을 기억하고자 하는 현장을 방문하자. 그리고, 5월 광주 항쟁의 중심인 금남로와 민주광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자. 5월18일 국가에서 진행하는 기념식장에서 함께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도 좋지만, 금남로와 민주광장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더욱 가슴을 울리지 않는가?



나양재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관관장〉

신화로 읽는 5월 광주... ‘오월의 붓긔’

김봉준 판화가 신작전

메이홀 8-31일 특별전

거대한 걸개그림과 판화들과 도도한 신물 신당이 광주의 갤러리 공간에 펼쳐진다.

광주 대안문화공간 ‘메이홀’은 오는 31일까지 ‘붓긔’와 ‘생태판화’ 작가로 알려진 김봉준(사진) 판화가를 초청, 5월 특별전을 갖는다. 김 판화가가 광주에서 갖는 첫 전시다.

이 전시는 ‘오월의 붓긔’를 주제로 열린다. 작가는 전시장에 ‘오월의 통곡’과 ‘신화의 나라’ 등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김봉준 작가는 홍익대 미대에서 조각을 전공하다 탈춤에 심취, 이후엔 민중미술운동의 큰 축 ‘두령’을 창립했고, 목판화와 벽화와 걸개그림, 붓그림과 한글 쓰기 등 민중미술을 주도해왔다. 1990년대엔 생태주의 문화에 눈뜨고, 사고는 신화로 확대됐다. 신화미술관을 열었으며 서울과 강원도 문막을 오가면서 촛불혁명에 동참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5·18 민주항쟁의 연루자로, 대학 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창



비에 근무했고 5월 광주 소식을 가장 많이 알게됐다. 탈춤 풍물패와 함께 광주를 알리고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포고령 위반’ 주도자로 1년을 수배됐다. 이는 서울에도 알려진 최초 유인물 사건이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먼저 오는 18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붓긔 퍼포먼스’가 이뤄지고, 19일 오후 4시 메이홀에서 김봉준, 임종영, 이상호, 주홍 작가가 참여해 ‘작가와 대화’를 진행한다.

메이홀 전시장엔 ‘김봉준의 오월 율음통’ 영상 상영도 매일 진행된다.

/정겨울 기자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서’

6월26일까지 김설아·조현택 2인전...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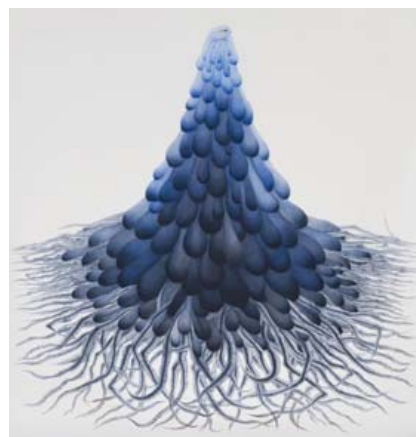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설아·조현택 작가가 오는 6월26일까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전시는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서-그리고 상실은 욕망이 된다’를 주제로 이뤄진다.

여수가 고향인 김설아 작가는 대단위 화학공장 건설로 인해 이주민이 됐고 작가는 상실해버린 자신의 터전을 먼지나 돌연변이 벌레의 미세한 촉수와 같은 현미경적 물입의 시선을 통해 마술처럼 불러낸다. 작가는 떨감으로서 생명을 다한 재(ash)나 먼지조차도 생명을 지닌 생명체로 봤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약한 생명체의 상실, 소멸을 기록해왔다. 따라서 작가는 먼지, 깃털, 단세포 생물에서 기억에 이르기까지 사라져버린 과거의 시간과 기억을 시각화했다.

한편, 갑작스레 어머니를 잃은 조현택 작가는 카메라옵스큐라(Camera obscura)의 눈을 통해 어두운 빈방에 맺힌 밝은 바깥풍경의 이중적인 시선으로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그리움의 대상과 조우하는 꿈을 꾀다.

조현택의 ‘빈 방’ 연작은 대표적인 두



김설아 작 ‘눈물, 그 건조한 풍경’

세계의 상관관계 혹은 갈등관계를 사진의 본질을 따라가며 형상화한 작품이다. 어두운 방과 밝은 마당,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옵스큐라(obscura)와 루시다(lucida), 정지와 흐름, 그리고 사라짐과 살아있음 등이 그 대립적인 두 가지 세계다. 어머니의 부재를 심각하게 앓던 작가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의 현실적 계기를 찾기가 무망한 지경에 놓이게 됐다가, 사진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게 된 것이다. (전시 문의 061-450-5482)

/정겨울 기자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